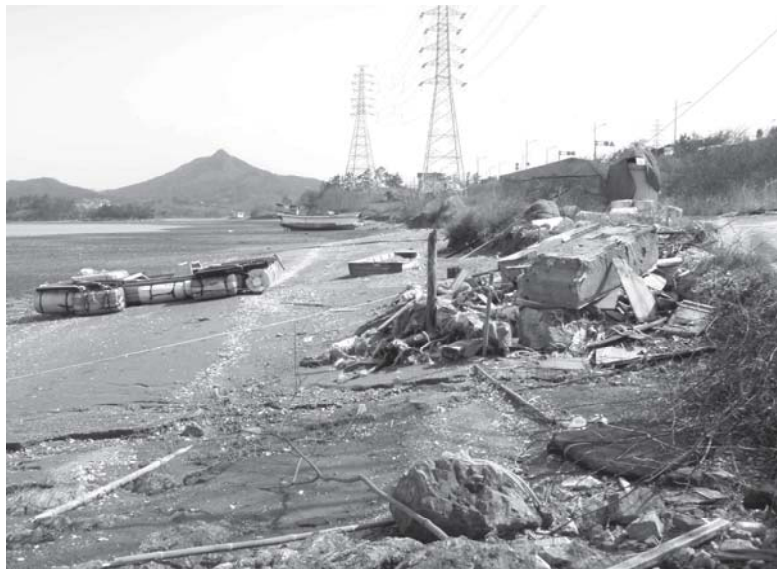


바다와 함께 걷다

| 김우숙 |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해안가의 쓰레기(무안 구로리)

요즈음 건강이 화두다. 건강하려면 많이 걸으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2013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해안을 걸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우선 서해안부터 걸기로 하였다. 최대한 바다 가까이를 걷는다.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니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와 해안침식이다. 모든 종류의 쓰레기가

바다를 향해 널부러져 있다. 경운기까지 모래에 묻혀서 손잡이 부분만 밖으로 나와 있다. 소파, 펫트병, 농약병, 스티로폼도 보인다. 모든 생활쓰레기가 바다를 괴롭히고 있었다. 바다는 이런 쓰레기들로 중병을 앓고 있다. 저대로 놔두었다간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한다. 몰디브 등의 낮은 섬들이 물에 잠기어 면적이 좁아지고 결국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 해안선이 정비되어있는 곳도 있지만 침식된 모양이 심하다. 흙더미가 바다 쪽으로 무너져 있고 바닷가에 서 있던 소나무가 바다 쪽으로 넘어져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다.



침식 중인 무안 망운면 해변



무너지고 있는 시멘트 방조제(무안 망운 해변)

영성하게 해 놓은 방조제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 모래톱 위에 갈대가 자라고 있어서 천연방조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강화도까지 가려다가 태안까지 밖에 못 갔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각 지자체 별로 해당 해안선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둘째로는, 예산을 투입하여 해안선에 있는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치우고 오염원을 차단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파악된 실태에 근거하여 가장 적절한 방조제 공사를 서둘러야 하며, 넷째로는,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해안 따라 걷는 길을 조성한다.



갈대로 된 천연 방조제(고창 구시포 해변)

4 해양담론 <창간호>